네티즌들 '민주노총 투쟁에 동참하겠다'

노동과세계 | 승인 2008.05.23 23:17

네티즌들 민주노총 반광우병, 반사유화 투쟁 등 민주노총 투쟁방침 지지, 투쟁동참 밝혀

[사진2]
네티즌들이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호응하며 투쟁동참 의견을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조직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철회 총력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이명박정권이 장관 고시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도 보다 강력한 반이명박 투쟁의 필요성을 외치며 '비상시기 직접행동'에 속속 나서고 있다.

회원 16만여 명이 가입한 이명박탄핵연대 네티즌들은 민주노총이 5월24일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운송저지 투쟁방침과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총력투쟁 등을 발표하자 관련 소식을 인터넷 카페 메인 공지화면에 배치하는 등 힘을 더하며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1]
민주노총 투쟁에 대해 네티즌 ‘피눈물흘려’ 씨는 “앞날이 어찌될지 어찌될지 너무 답답하다, (민주노총 투쟁 결의에)감사하다”는 대글을 달고 “힘내자”고 말했다.

또 ‘떠나고싶은이’ 씨는 대글을 통해 “여의도에서 전국 교사대회도 하고, 집회이후 촛불집회로 이동할 계획이며, 24일 교사건 학생이건 모두들 하나가 되어 청와대까지 시끄럽게 들리도록 소리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촛불집회에 일부 강제동원된 교사들도 있지만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교사들도 대부분 분노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네티즌 'rara20002' 씨는 “(민주노총 투쟁 관련 공지글)제목을 칼라풀하게 번쩍 뜨이게 하면 더 좋겠고 신랑 놔두고 혼자라도 상경하겠다”며 환영했고 ‘여행’ 씨는 민주노총 대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 약도를 요청하는 등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5월24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등지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네티즌, 시민들이 결합해 반이명박 촛불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네티즌들 사이의 '자연스럽고 새로운 연대전선'이 힘과 탄력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노동과세계 kctu@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